

주일 3부 예배(청년부 예배)

1시 중고등부실	
목 상 기 도	다 같 이
신 앙 고 백	다 같 이
찬 양	청년부 찬양팀
기 도	김지원 청년
성 경 봉 독	로마서 13장 1-3절 사회자
교 회 소 식	사 회 자
설 교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심광보 목사
기 도	심광보 목사
축 도	심광보 목사

오후 예배는 쉽니다!

사회 : 하의용 목사 찬송 : 210 장 기도 : 한효숙 권사
성경 : 시편 48편 1-14절
설교 :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하의용 목사) 찬송 : 249 장

기도 | 23일 1부 이상남 2부 송태원 3부 오후 수요 전미영
30일 1부 송희준 2부 김두환 3부 오후 수요 서숙희
헌금 | 23일 1부 조춘식 고순임 2부 문영화 유순복
30일 1부 정 윤 김 은 2부 진덕희 이영숙
특송 | 일 오후 수요
일 오후 수요
안내 | 예배 1부 최정지 2부 김혜영, 김혜정
차량 송희준, 김재목, 최재현, 문성민

제 52권 42호

하의용 심광보
이소현 권은혜 이현경

김근호 나윤섭 김찬기 임춘선 송태원 김두환
한창규 김명남 한성웅

이소현 애은김영 하은정

10월 16일	
예배전찬양	임마누엘 찬양팀
목 상 기 도	다 같 이
신 앙 고 백	다 같 이
찬 양	임마누엘 찬양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 도	정운관 집사
성 경 봉 독	로마서 13장 11-14절 사회자
교 회 소 식	사 회 자
설 교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하의용 목사
※ 찬송(헌금)	428 장 이은갑, 김춘화
※ 헌 금 기 도	사 회 자
※ 축 도	하의용 목사

※표시는 헌신의 뜻으로 일어서서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롬 13:11)

목 상 기 도	마음준비	다 같 이
성 시	시 편 121 편	사 회 자
※ 찬 송	10 장	다 같 이
※ 교 독 문	76번(요한복음 1장)	다 같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다같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435 장 다 같 이
기 도 임춘선 장로 다 같 이
성 경 봉 독 로마서 13장 11-14절 사 회 자
찬 양 주 품에 품으소서 시온찬양대
교 회 소 식 사 회 자
설 교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하의용 목사
※ 찬 송 428 장 다 같 이
※ 헌 금 유대곤, 이자원 다 같 이
※ 봉 헌 기 도 다 같 이
※ 축 도 하의용 목사

※표시는 헌신의 뜻으로 일어서서 드립니다.

<옆에 앉으신 분과 인사합시다>

예배위원은 예배시간 20분전까지 미리 오셔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소식

- 1.예배 주일 1, 2, 3부 현장예배와 교육부서 현장예배가 모두 정상화 되었습니다. 현장 예배 참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2.확신반 오늘 2부 예배 후 33기 확신반이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 3.구역장모임 오늘 점심식사 후 1시에 구역장 모임이 유초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 4.학습/세례 학습/세례(유아세례)를 신청하실 분들은 23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교육은 30일(주일)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 5.수험생을위한기도 11월 17일 수능을 치루는수험생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영(김민호 집사, 강미연 집사), 김기찬(김두환 장로, 김현양 집사), 김민주(김경화 집사)

- 6.엘리베이터 공사 교회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를 위한 헌금에 성도들께서 힘써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7.점심식사 오늘 부터 점심식사가 제공됩니다.
- 8.금요심야기도회 금요심야기도회(금요일 저녁 9시)에 함께 참여하여 기도합니다.
- 9.성경통독 삼광의 모든 교우들은 성경통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헌금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헌금을 아래의 계좌로 송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협 301-0170-4479-41 삼광교회
보내시는 분 성함+헌금내역 (예)홍길동십일조, 홍길동감사 등
▶ 개인 헌금 내역이 궁금하신 분은 스마트 요람 하단부에 있는 "개인헌금" 아이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행사일정

2일 당회
9일 3/4분기 정기 제직회
11일 서울노회 제 102회 정기 노회
30일 종교개혁주일

헌금

10/8(토)~10/14(금)까지

십일조헌금 강유진 김경자 김재목 서숙희 송승원 송희준 이영숙 이지선 최광식 최정지 하재훈
한호숙 감사헌금 김민자 김영자 김혜림 김혜영 무명 문영화 서태호 이연숙 임순자 전귀봉
조숙자 최용선 최정지 하복림 하은정 한은희 생일감사헌금 김지우 선교헌금 문성민 구제헌금
문미순 최정화 건축헌금 송희준 나눔과 섬김 기부금 김화선 송희준 한은희 엘리베이터
교체헌금 김민자 김은정 김정례 서성훈 양기석 이영숙 장영옥 전귀봉 조인숙 허정애

세빛 도서관

1. 대출 도서를 아직 반납하지 않으신 분들은 도서관으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과 섬김

1. 매월 2회 음식섬김 교회 밖 어르신 8명
2. 서대문 저소득층 섬김 매월 10만원

선교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지역 기관 :

월드비전, ISF(국제학생회), (사)한국사랑나눔공동체
인도(장ㄸㄴ 선교사), 스리랑카(피터권 선교사), 시리아(하ㅍㅅ 선교사), 태국(한준희 선교사)
좋은나무교회(이종아 목사), 언덕위의교회(김하용 목사), 복음선교교회(권의석 목사)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303-198381 삼광교회 선교부

메모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합니다.

제가 요즘 금요기도회를 강조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뭘 강하게 요구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여러분께 매번 강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간절한 마음을 전해주시신 이상 저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본 칼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합의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워서, 완전한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엘리야를 역사의 무대 위로 끌어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왕상17:3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말라가는 그릿 시냇가에 숨기셨을까요? 그것은 말라가는 그릿 시냇가를 통해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의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시대적 사명의 출발은 현실의 아픔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야만 기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메마름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절박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메마른 그릿 시냇가 곁에서만, 절실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합의 시대처럼 어둡고, 쇠퇴의 갈림 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둡고 절망적인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7천명의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삼광교회가 이 시대를 위해 남겨두신 엘리야와 7천명에 속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삼광공동체가 그릿 시냇가의 엘리야처럼 이 땅의 아픔과 위기를 직시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향해 생명을 걸고 부르짖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다. 오직 부르짖는 기도만이 이 땅에 패역함으로 닫혀진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성경통독

□10/17(월)마태복음 14-16장 □10/18(화) 마태복음 17-20장 □10/19(수)마태복음 21-23장
□10/20(목)마태복음 24-26장 □10/21(금)마태복음 27-28장 □10/22(토)마가복음 1-4장
□10/23(일)마가복음 5-8장

※ 마가복음 통독 길잡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 가장 짧고, 가정 먼저(A.D. 65 ~ 70년 사이)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서는 예수님의 삶과 행동에 초점을 맞춰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는 베드로의 동역자이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한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한창인 로마에서 본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때문에 마가복음의 1차 목적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후대에 전하는 것이고, 2차 목적은 네로 치하에서 순교의 위협을 당하던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권능과 대속 사역, 부활 승천을 전함으로써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